

http://dx.doi.org/10.17703/JCCT.2020.6.1.209

JCCT 2020-2-26

다문화 병사의 복무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 근거이론 방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ervice Adaptation Process of Multicultural Soldiers : Focused on Ground Theory

박상혁*

Sang-Hyuk Park*

요약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측면에서 군사력이 심각한 위험 구간에 진입하였으며, 또한, 저 출산은 단순히 국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후의 안보 보루인 군 조직에서의 병력자원 감소로 이어져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가며 곧, '다문화 가정 출신 자녀'의 군(軍) 입대 추세는 2025년부터 2031년 사이에 연 평균 8천여 명이 입대할 것으로 예측 됨으로서, 대한민국 국군의 병력자원은 '다문화 군대'로 변모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최후의 안보 보루인 군 조직에서의 병력자원 감소와 다문화 군대라는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병사가 군(軍) 복무 적응과정을 어떻게 적응해 가고 있는가를 밝히고, 군(軍) 생활 적응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범주화시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이다.

주요어 : 다문화주의, 근거이론, 적응과정, 군인, 병역

Abstract In terms of population structure, Korea military power has entered a serious danger zone, and that birth rate has led not only to a decrease in the population of the nation's economic activity, but also to a decrease in troop resources in our last security bastion, and the trend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joining the army is predicted to soon become a "cultural force" with an average of 8,000 troops expected to join the army between 2025 and 2031. After all,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of declining troop resources in the military organization, the nation's last security bastion, and the multicultural army will be added. Therefore, this study reveals how multicultural soldiers are adapting to military service and analyzes them in depth by categorizing a series of processes on military life adaptation.

Key words : multiculturalism, ground theory, adaptation process, soldier, military service

1. 서론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의 급진적 증가로 인하여 과거, 2000년 1만 2천여 건이던 국제결혼은 2005년 4만2

천여 건으로 급증하여 전체 결혼 건수의 13.5%에 이르렀으며, 2016년 기준으로 전국의 다문화가정은 27만 8천여 가구로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인 2016년 6월 기준 200만 명(인구3.9%)을 넘

*정회원,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1저자)
접수일: 2019년 11월 15일, 수정완료일: 2019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0일

Received: November 15, 2019 / Revised: November 30, 2019

Accepted: December 10, 2019

*Corresponding Author: tndhksrla@hanmail.net

Dept. of Administration, Chung Ang Univ, Korea

있다[1]. 또한, 법무부 외국인 정책통계에 따르면 지난 1998년 30만 명에 불과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004년 75만 명, 2008년 116만 명으로 늘었고, 2012년에는 그 수가 145만 명에 이르게 됐다. 따라서,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한 국가 혹은 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서 문화적 다양성과 특수성을 논의할 때 사용되는 개념으로 다수 집단의 정체성과 이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소수집단의 정체성 간의 공존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은 지난 1950년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징병제를 토대로 병역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징병제의 균역을 요구함으로써 항상 ‘병력충원’이란 문제가 대두되어왔다[1].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의 개념

‘다문화’의 개념은 매우 혼란스러울 만큼 다의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고, 때로는 객관적 사회현상을 지칭하는 기술적(Descriptive)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였다[2].

즉, 다문화는 구체적인 분야나 내용과 결합하여 쓰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며, 다양한 문화가 어울려 어떤 분야의 새로운 과제가 생겼음을 의미한다[3]. 이처럼 다문화라는 용어는 문자 그대로 ‘다양한 문화’로 다문화 국가, 다문화 사회, 다문화 환경, 다문화 가정, 다문화 정책, 다문화 교육 등 우리 주위를 구성하는 각 분야와 결합하여 쓰이고 있다[4].

2. 다문화 병사의 군 입영 증가

1945년 광복 당시 이 땅에 외국인인 극소수였다. 대한민국을 삶의 터전으로 여기는 이방인은 손에 꼽혔으며, 비록 함께 삶을 공유한다 해도 경계는 분명하였다. 한민족이란 공동체 울타리를 넘지 않았으며, 우리 역시 굳이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70년 세월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단일민족’이라는 성벽에 균열을 가져왔으며,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인종 사회’로 발을 디뎠고,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2010년 대한민국의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이듬해부터 다문화가정 출신도 피부색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의 남성이면 똑

같이 병역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전에는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은 제 2국민역으로 편성해 현역이나 보충역 징집에서 제외하였으며, 2014년 육군 소대 전투병에 다문화가정 출신이 처음 선발된 데 이어 다음해 4월 최전방 GOP소대에 투입되었다.

2011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조사결과 2012년 징병 검사 대상자인 ‘다문화가정 출신 자녀(남성)’ 2012년에는 1,165명, 2019년에는 3,045명, 2026년에는 5,000명으로 예상되며, 2028년에는 현역병 수가 1만 2,000여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저 출산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병력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인 만큼 다문화가정 출신 병사는 한국군에서도 꼭 필요한 존재로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5]. 따라서 대한민국 국군의 인적자원 변화는 향후 20년 후, 전체 장병의 5%가 다문화가정의 출신으로 충원될 전망이다.

최근 다문화가정 출신 자녀의 군 입대 추세를 분석한 결과, 2025년부터 2031년 사이에 연 평균 8천 518명의 다문화가정 출신 자녀가 입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또한 국방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18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는 2006년 2만 5천여 명에서 2015년 20만 8천여 명으로 8배 이상 늘어 다문화가정 자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 군(軍)이 ‘다문화 국군’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3. 다문화 병사에 대한 인식

「다문화 군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에 따른 정책대안 연구」에 따르면, 국내 군 병원에서 의무 중인 병사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 ‘다문화 가정 병사하면 떠오르는 나라’ 베트남 7명, 필리핀 3명, 그 외 미국, 일본, 태국, 없다 각 1명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백인, 흑인,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동남아, 중국, 일본인계 다문화 출신 병사에 대한 느낌’의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6].

- 백 인 : 하얗다. 약해 보인다. 강한체력, 말끔한 느낌, 고정관념, 강한 자존심, 위협적, 인종차별, 다혈질, 이기적, 큰 키, 친숙, 아무 느낌 없음
- 흑 인 : 운동·음악을 잘 할 듯, 무섭다, 강인함, 현실에 대한 불만, 말근육, 여털 듯, 신기할 듯, 거부감에서 친해지면 좋은 관계로, 예술 적일 듯
- 새터민 : 적대시, 의심스럽다, 신기할 듯, 불쌍할

- 듯(따돌림, 놀림), 말이 없을 듯, 소심, 우울, 호감이 안갈 듯, 마음이 통할 듯,
- 동남아 : 말이 안 통할 듯, 왜소할 듯, 냄새날 듯, 친절, 정이 많을 듯, 이질감, 잘먹을 듯, 피부가 우리와 너무 다를 듯, 열등적, 약자
- 중 국 : 적대시, 냄새날 듯, 느낌 없음, 사기칠 듯, 뛰어난 요리실력, 열심히 일할 듯, 시끄럽고 이기적일 듯, 비위생적일 듯, 목소리 클 듯, 공산주의라 좋지 않을 듯, 비슷한 외모로 어려움 없이 지낼 듯
- 일 본 : 잘해줄 것 같다, 거부감, 느낌이 없다, 우리와 비슷할 듯, 집단생활과 괴리감, 이중적, 나쁘지 않을 듯, 이중적, 나쁘지 않을 듯, 친해지기 어려울 듯, 약을 듯

위 연구 결과의 의미는 아직까지 '다문화 출신 자녀'에 대한 선입견이 대한민국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사회가 다문화에 대한 先 교육을 아동기·청소년기·성인기까지 각 단계별 절차적인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정착하는데 아낌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

III. 연구설계

1. 근거이론 연구의 적절성

근거이론(Ground Theory)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도출된 자료로부터 이론(Theory)을 찾아내는 연구방법으로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이론에 도달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 할 수 있다[7].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에 대한 논의를 처음 다루기 시작한 시기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다문화출신 가정의 병사'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설문조사(Survey)를 통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양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다문화 관련 연구를 다루는데 있어 아직까지 국내 다문화 현상에 따른 군(軍) 관련 연구가 포괄적이거나 질적 연구들은 대부분 미비한 실정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군(軍) 입영 전, 일반사회에서 유아기~청소년기 과정 간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 또래 집단들과 단체 및 조직생활을 경험하였고, 만 19세 성

년으로 도래되어 군(軍)에 입대한 자원들이다. 즉, 군(軍) 입대 전, 이들이 경험한 사회생활과 군 입대 후, 병영생활을 모두 경험하였고, 더불어 이들의 삶의 질적인 부분과 성장환경, 행동양식은 각 개인적인 고유의 습성, 성향, 배경 등으로 각 요소가 다채로워 양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를 적용하여 이들의 이해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다문화'에 대한 논의로 출발한 '다문화가정 출신 자녀들의 군복무 적응문제'에 대해서 위 내용에 언급한 한계점을 인식한 배경이며, 이것이 본 연구의 방법론인 근거이론(Ground theory)을 적용한 이유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이 제시하는 인간행동의 상호작용 본질을 이해하고 다수의 개인들이 포함된 과정, 행동의 분석을 통해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작용·상호작용으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다. 연구 대상자 선정간 전·후방 대대급 부대에서 복무하는 다문화 출신 현역병사 대상으로 이론적 표집을 실시하여 자료수집 후에는 자료를 즉시 분석하는 지속적 비교 분석법을 통해 부호화, 범주화 하였으며, 연구대상자와 인터뷰 간 장소를 선정하여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표현과 태도 등을 관찰하여 현장노트에 필사로 기록하여 수집하였고, 자료 분석은 비교분석 방법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이중, 개방코딩(opening coding)은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범주화시켜 필사된 참여자의 면담 내용을 반복하여 자료를 분석하였고, 축코딩(axial coding)은 범주를 분석하고 이어 질 수 있도록 초점을 두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3. 연구모형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현역 군 복무 병사 10명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연구 대상자 선정 간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자와의 관계가 없는 다문화가정 출신 현역 군 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과정에서는 Strauss & Corbin(1998)에 의해 개발된 코딩과정 분석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따라서 자료수집 및 분석,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과정 흐름으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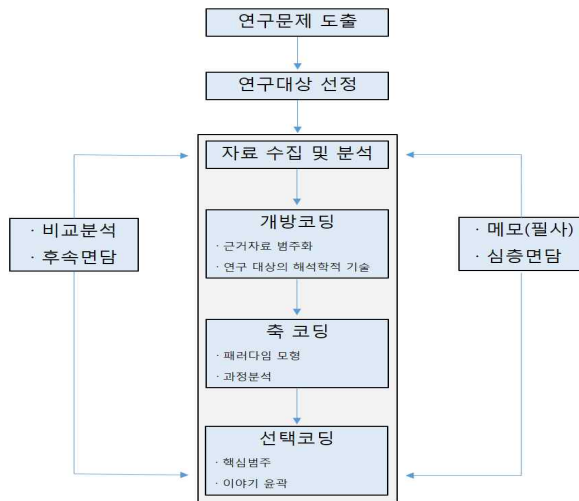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에 기초한 연구방법으로써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에는 심층면담(depth interview), 현장노트(필사), 관찰의 방법을 통해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또한,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Strauss & Corbin(1998)에 의해 제안한 원칙은 자료수집에 있어서 포화(Saturated)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범주와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을 일컫는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포화(Saturated)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심층면담(depth interview)의 횟수의 빈도를 높여 지속 면접 및 현장기록(필사)을 진행하였다.

IV. 분석 결과

1. 개방코딩: 범주

본 연구서의 대상자들이 인터뷰간 답변한 ‘개념화’ 내용을 토대로 본 장에서 ‘하위범주’는 위와 같은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도출된 ‘26개의 하위범주’의 세부내용으로는 ‘다문화 병사가 복무 과정’을 통해 ‘군 복무간 언어사용의 제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군 조직 구성원들에게 차별을 받는 현실’, ‘다문화 가정 출신의 자녀라는 인식’, ‘군 조직생활의 역울한 현실’, ‘군 임무수행간 병영생활의 어려움’, ‘경직된 군

저녁점호의 행사’, ‘부여된 임무의 제한’, ‘군 보직의 불만’, ‘군 생활 자체의 스트레스’, ‘입에 맞지 않는 식단’, ‘잉여 시간의 문제’, ‘군 생활을 무사히 전역해야 하는 현실’, ‘자기계발’, ‘꿈을 위한 노력’, ‘또래 집단들과의 자연스러운 친밀도 향상’, ‘비슷한 취미를 통한 또래 전우와의 만남’, ‘수단과 방법 도구’, ‘나는 할 수 있다는 신념’, ‘체념하지 않으면 전역 할 수 없다는 현실’, ‘힘든 군 생활의 극복’, ‘성취감’, ‘기대감’, ‘복잡한 생각의 정리’, ‘편안함’,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음’, ‘가족의 소중함’의 26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범주내용은 하위범주를 구성한 바탕으로 1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장에서 도출된 14개의 범주의 내용은 ‘의사소통의 장벽’, ‘편견 및 차별’, ‘부담감’, ‘체력적·정신적 고충’, ‘식단의 고충’, ‘외로움’, ‘목표의식 형성’, ‘의지’, ‘대인관계 형성’, ‘도전’, ‘환경의 적응’, ‘희망’, ‘신앙의 힘’, ‘가정의 회귀’로 총 14개의 범주가 구성된 배경이다. 따라서 26개의 하위범주와 ‘14개의 범주’의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표 1. 개방코딩 범주
Table 1. open-coding categ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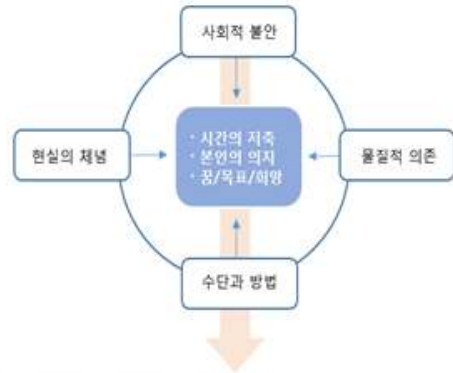
개방코딩 : 범주		
구분	14개의 범주	26개의 하위범주
1	의사소통의 장벽	· 군 복무간 언어사용의 제한
2	편견 및 차별	·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군 조직 구성원들에게 차별 받는 현실 · 다문화가정 출신의 자녀라는 인식
3	부담감	· 군 조직 생활의 역울한 현실 · 군 임무수행간 병영생활의 어려움 · 경직된 군 저녁점호의 행사
4	체력적·정신적 고충	· 부여된 임무의 제한 · 군 보직의 불만 · 군 생활 자체의 스트레스
5	식단의 고충	· 입에 맞지 않는 식단
6	외로움	· 잉여 시간의 문제
7	목표의식 형성	· 군생활 무사히 전역해야 하는 현실
8	의 지	· 자기계발 · 꿈을 위한 노력
9	대인관계 형성	· 또래 집단들과의 자연스러운 친밀도 향상 · 비슷한 취미를 통한 또래 전우들과의 만남
10	도 전	· 수단과 방법의 도구 · 나는 할 수 있다는 신념
11	환경의 적응	· 체념하지 않으면 전역 할 수 없다는 현실 · 힘든 군 생활의 극복
12	희 망	· 성취감 · 기대감
13	신앙의 힘	· 복잡한 생각의 정리 · 편안함
14	가정의 회귀	·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 · 가족의 소중함

2. 축코딩: 과정분석

축코딩(Axial coding)에서의 ‘과정 분석’은 작용/상호 작용의 단계에서 도출된 내용을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시간과 공간에 중요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경험적 단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본 장에서의 일련의 과정을 분석한 결과 1단계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움’을 「무질서」로, 2단계 ‘고통스러운 정서를 자극’을 「억압」으로, 3단계 ‘내가 누구인가?’를 「자아 정체성 혼란」으로 4단계 ‘스트레스 대처 및 좌절의 대처’를 「퇴행」으로 마지막 5단계 ‘다른 방향 및 상태의 변화’를 「전환」의 과정으로 다섯 가지의 절차로 분석하여 구성하였다.

3. 선택코딩: 과정분석

본 장의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가정 출신 현역 군복무 병사가 군 병영생활을 적응하는 과정’으로의 연구로서 이를 통합하는 연구의 핵심범주(Core category)는 ‘선입견의 색안경을 극복하고 전역 후의 목표의식 설정 및 새로운 희망’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군 조직의 낮은 환경과 수직적·일방적 지시 및 통제에 따른 군 조직의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서툰 한국어의 ‘의사소통’에서 느끼는 정서적 고충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서툰 한국어 구사 때문에 군 조직원들 중에서 이들을 간접적으로 우회하며 편견과 차별로 몰아넣은 경험을 겪었다. 또한, 본 장의 연구 참여자들은 군 병영생활 중,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직접적인 편견과 차별은 없었다고는 하지만, 우회적인 편견과 선입견으로 군 병영생활 중, 다문화가정 출신 병사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로 이들을 대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군(軍) 병영생활 중,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우회적인 편견과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는 ‘본인과 맞지 않는 보직의 부담’, ‘본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유 없는 부담감’, ‘전우조가 24시간 감시하는 부담감’, ‘군 간부들에 의한 목적 없는 빈번한 상담과 동일질문의 중복’, ‘본인이 원하지 않는 군 적응 동화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뽑을 수 있으며, 결국, 이들은 군 병영생활 중, 본 장의 핵심범주(Core category)인 ‘선입견의 색안경을 극복하고 전역 후의 목표의식 설정 및 새로운 희망’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였다.



‘선입견의 색안경을 극복하고 전역 후의 목표의식 설정 및 새로운 희망’

그림 2. 핵심범주 이론 모델

Figure 2. Core category theory model

IV.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는 ‘선입견의 색안경을 극복하고 전역 후의 목표의식 설정 및 새로운 희망’이라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출신 병사들이 군(軍) 복무 과정’을 경험적 현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의의를 제시할 수 있다. 군(軍) 조직 일원들이 ‘다문화 병사’를 바라보는 인식의 선(先)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민족’이라는 고착화된 이념으로 인해 외국인들과 대화나, 인관관계 형성에서 ‘보이지 않는 창’으로 인하여 선입견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또한, 군 조직은 유형적·무형적 전투력을 창출하고 국가 최후의 보루로써, 전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평시에 각종 훈련 및 군사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수한 집단이다. 이러한 군 조직은 일반 사회에서 볼 수 없는 부대원들의 높은 ‘단결력, 융화력, 집단력’ 등의 요소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군 조직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군 조직 구성원들이 ‘일체감’ 형성이라는 조직 집단적 문화가 파생되어 군 조직의 구성원들은 끈끈한 전우애로 단합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본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 연구에서 다루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연구가 미비한 실정으로 ‘다문화 병사’의 경험을 통해, 군(軍) 생활 적응에 관한 일련의 과정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의 결과가 제공하는 의의를 제시할 수 있다.

References

- [1] K. H. Cho & S. J. Hong, A Study on the Transition to the Multicultural Army of Korea "Economic Policy Studies." 166: 131-166, 2010.
- [2] M. H. Jung, The case of racism in the U.S. military and implications for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troops into a multicultural army. "Peace Research." 11(3): 288-289, 2011.
- [3] Y. O. Kim, The Direc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response to Multicultural Society, Conference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8.
- [4] M. H. Jung, PhD.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Kookmin University, 2014.
- [5] B. K. Jin, PhD. thesis of Daeje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8.
- [6] E. R. Jeon & S. H. Byeon, the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a spring conference, pp. 225-231, 2012.
- [7] Gla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of Qualitative Research.

※ 이 논문은 박상혁의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2019)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
성한 논문 임.